

광주 입맛 '베트남'에 빠지다



육수 등 음식문화 비슷...광주 쌀국수전문점 50곳 성황 분짜·반짜오 등 인기 백화점도 판매...창업아이템 부상

광주지역에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명 쌀국수 프랜차이즈가 광주에 상륙한 뒤 잇달아 베트남 음식점들이 개업하면서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0일 쌀국수 프랜차이즈 '에머이'가 매장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광주에서 구 치평동에 광주 1호점이 들어선 뒤 첨단과 수완지구, 충장로 등 4호점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도 가맹점이 들어섰다.

에머이 가맹점주는 "상무점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며 "겨울엔 잠깐 주춤했지만 날이 풀리면 다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머이 외에도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월남옥, 리틀하노이 등 베트남음식 프랜차이즈가 다양해지고, 창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와 이주민여성이 많은 광산구 일대에도 개인 쌀국수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쌀국수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쌀국수 전문점은 총 50여개로 추정된다.

특히, 월남쌈과 쌀국수에만 한정돼 있던 베트남 음식의 메뉴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로 꼽힌다. 숯불 돼지고기와 쌀국수 면을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인 '분짜'부터 채소와 돼지고기, 해산물 등을 얹어 부친 '반짜오', 현지식 '야채볶음' 등이다.

주요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호이안 등 베트남 중북부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 해당지역이 '인기 여행지'라는 점을 감안,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덩달아 현지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 베트남 음식이 쌀을 주축으로 하는데다, 소고기를 우린 곰탕 형태의 육수를 내는 등 음식문화가 비슷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창업이 늘고 인기를 끌자 유통업계에도 다양한 쌀국수 제품을 선보이고 나섰다.

(주)광주신세계의 경우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동남아 음식재료를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한 상태다. 이주민이 늘고 동남아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쌀국수용 라이스 누들과 칠리소스, 월남쌈용 라이스페이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는 자체 간편식 브랜드 피코크의 봉지라면 형태의 베트남 쌀국수 '피코크 포하노이'를 출시했다.

2015년 5.3%에 불과했던 베트남 쌀국수 매출 증가율이 2016년 30% 중

가, 지난해에도 20%를 넘어서는 등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반면 2015년 20% 이상 증가했던 라면 매출은 지난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GS25도 베트남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용기면 쌀국수 '포디뽀'를 선보인 것에 이어 오는 13일 조리된 베트남 쌀국수 '유어스 빅포'를 출시할 예정이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2000년대 초 국내에 상륙한 베트남 쌀국수는 여행객이 늘고 입맛도 길들여지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고 있다"며 "비교적 자극적인 입맛을 가진 광주·전남의 특성상 태국 쌀국수 '팟야'와 '똥양공' 등 태국음식도 유망 창업업종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50.74 (+6.66)
- ↑ 금리 (국고채 3년) 2.19% (+0.02)
- ↑ 코스닥 877.30 (+2.86)
- ↓ 환율 (USD) 1066.40원 (-0.70)

“광주, 럭셔리카 성장 가능성 높다”

이동형 신성자동차 대표...“공격적 마케팅으로 매출 신장”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광주지역 정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이동형(55·사진) 대표 집무실 벽에는 자동차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이 가득 붙어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다가 국내 완성차보다 많이 팔렸다는 기사 등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기사는 스크랩해 벽에 붙여놓는다.

최근 부임한 이 대표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신차 2000대 판매를 위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성자동차가 판매한 차량은 1745대로, 지난 2002년 사업 개시 이래 처음으로 ‘신차 2000대 판매’ 및 ‘전년대비 매출 120% 초과’를 달성하겠다는 게 이 대표 목표다. 지난해 광주 전체 수입차 판매량(4977대)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40% 가 넘는 셈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국내 벤츠 판매량의 경우 올 들어서 3월까지 2만1633대가 팔려 전년도 같은 기간(1만9119대)보다 13.1%가 증가했다. 광주도 이 대표 부임 이후 한 달 판매량이 200대를 돌파하는 등 성장세다. 이 대표는 30년 가까이 현대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경험한 현장과 마케팅, 상품개발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에도 대부분 고가(高價) 차량이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광주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함(Something different)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 “광주 럭셔리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콜센터를 통해 매일 1000통이 넘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콜 영업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불만·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5월에는 기존 소춘공단 서비스센터 외에 수완지구 정비센터가 추가로 건립돼 소비자들을 위한 ‘빠른 서비스의 응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임 뒤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고 자동차 정비전문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역 사회 일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월 수출 자동차 줄고 선박 늘어

한은 경제동향...광주·전남 물가·아파트 매매가 상승

2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모두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22.0%, 전남은 4.4% 감소했다.

2월 광주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9% 감소했으며, 수입은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9.0% 증가

했다. 3월 중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올랐고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2월 전남 수출은 선박, 철강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 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8.0% 늘었다. 전남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동월대비 1.2%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전월대비 각각 0.2%, 0.1% 상승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중소기업 연구개발·정책 수요 발굴”

중기부광주전남청 간담회...기관별 노하우 등 소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재)광주·전남지역사업평가단과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정책 수요 발굴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부 R&D 지원정책은 물론, 타기관의 지원정책을 숙지해 정책홍보 효과를 높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개최했다.

또 기관별 업무 및 노하우 소개와 ‘효과적인 R&D 지원 정책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지역 기업의 애로 요인을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해 R&D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기술개발 및 성공기업의 사업화 지원까지 일관 지원서비스를 위한 기관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김진형 청장은 “올해는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기업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분기 제조업 경기 ‘맑음’ 예보

광주상의 BSI 24P 오른 ‘108’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은 2분기에 경기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2분기 BSI는 108로 전 분기 84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IT·가전(1분기 70→2분기 119)과 음식료(90→120), 유리·시멘트(75→125) 등은 성수기 진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자동차 부품(68→100)과 철강(121→100)은 완성차와 조선업의 업황 부진, 노동·통상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낮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기아차 스팅어 ‘레드닷 디자인상 최우수’

기아차의 스포츠세단 ‘스텅어’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우수상(Best of Best)을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10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총 6개의 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스팅어는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수송 디자인(transportation design) 분야’에서 최우수상(Best of Best)을 수상했고 현대차 넥소·코나, 기아차 스토닉·모닝은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지난해 6월 말 문을 연 기아차 브랜드 체험관 ‘비트(BEAT)360’도 ‘제품 디자인 부문-실내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본상을 받았다. 올해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는 세계 59개국 6300여개 제품이 출품돼 경쟁을 펼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